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대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권경지> ● 본보국: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안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 TEL: (0343)470-3155

## 법공양 페이지

# 결혼해 자식낳고 사는 것도 공부

다 리 꼬부리고 앉은 사람 피고 앉아요. 이게 대수롭지 않은 말 같지만 누가 다리 안 아프게 대신해 줄 수는 없으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지금 차원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뛰는 공부며 실천하는 공부예요. 우리가 보통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 실천으로 쉽게 뛰어넘을 줄은 몰라요. 나는 여러분에게 재미있게는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재미있고 진실하게 들으면 그것이 바로 진실한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하라고 항상 그러죠. 와선이나 입선이나 좌선이나 행선이나 돌이 아니라고요. 하다못해 번소예 동을 느러 기도 참선이라고요. 요만한 거 하나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모든 거를 자기가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고 가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몸을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하죠. 혹시나 시간이 있어서 앉아서 좌선을 할 때는, '15분이고 얼마 동안이고 시간 나는 대로 앉았을 때는 반드시 '주인공 너만이 너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하고 오직 그거에만 관하라고요. 말로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너만이 증명해 줄 수 있어.'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장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행하고 살고 갈 때에 어떠한 거든지 닦는 대로 주인공에 놓고 '너만이 길을 정돈해서 잘 가게 할 수 있어.' 하고 용도에 따라 관하는 거죠. 천차만별의 용도나 닦는 대로 자기 용도에 따라서 적당하게 굴러놓는 것. 이것은 무슨 까닭이나 하면 물이 땅 속이든 어디든 사방에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죠. 여러분도 한바다를 만들기 위한 방편이예요. 모두가 보임을 해야 하나. 한국대로 보임을 해야 하나.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갈 때는 흙물도 스퍼들어가고 똥물도 들어가고 핏물, 고름물, 구정물, 흙물 어느 물이든지 더럽고 깨끗함이 없이 그저 흘러들어갈 뿐이죠. 흘러들어가서 바다가 되면 그 바다에서 수증기로 올라가서 물을 정화시켜서 다시 내려보내죠. 그러면 평등하게 모두 자기 그릇대로 먹을 수가 있죠. 큰 건 큰 대로 작은 건 작은 대로요. 그게 생수예요. 그걸 이용해서 정수라고도 하죠. 그러듯이 우리 공부하는 것도 지금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나쁜 거든지 좋은 거든지 더러운 거든지 깨끗한 거든지, 안

되는 거든지 되는 거든지 다 말이에요. 내가 항상 그러죠. 안 되는 것은 '되게 하는 것도 너야' 하고 놓고, 되는 것은 감사하게 놓고 항상 자기 주처에다가 모든 것을 놓으라고요.

모두들 욕심을 끊어라. 번뇌를 끊어라 이렇게 하지만 난 그렇지 않아요. 욕심을 끊는 것도 아니고 안 끊는 것도 아니예요. 쉽게 말하면 '가는 거 잡지 말고 내 앞에 오는 거 마다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죠.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스스로 자기가 방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인간이기 때문에 나쁘고 좋은 거는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는 거 거절하지 말고 가는 거 잡지 마라. 이거는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가는 걸 억지로 쫓아간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오는 걸 자꾸 거절하는 것은 무능하게 되는 이치죠. 그러니까 오는 거 마다하지 말고 가는 거 잡지도 말아야 한다 이런 소리죠. 이해가 갑니까?

대중: 예.  
 스님: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오는 거를 마다하지도 않고 억지로 가는 것을 붙잡아다가 내가 뉘를 할 양으로 그러진 않아요. 하다못해 불사하는데 돈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여러분 앞에 괴롭게 하질



그림 · 최주현

## 불성은 수억년 나를 진화 시켜온 장본인 사소한 일 하나도 자성불에 몽땅 맡겨야

않아요. 단 하나 있다면 '너만이 할 수 있어.' 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은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난 그게 아니죠. '네가 있다면 하고 없다면 그만 뒤라' 하는 거죠. 허허허. 그렇잖아요. 부처가 있다면 할 것이고 부처가 없다면 못할 거 아니예요.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생활을 해라 이 소리죠. 바다에 파도가 치면 파도 치는 대로 잔잔하면 잔잔한 대로 어떠한 용도의 위기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거기다 놓고 갈 수 있다면 그건 최고예요.

거기에는 조금도 거짓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일체 만물이 다 불성이 있거든요. 생명의

근본이 다 있거든요. 하다못해 저 돌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꽃에도 있고 어느 것 하나에도 불성이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놓고 '네가 있다면' 또는 '네가 없다면 못하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진짜 너만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위급할 때도.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느냐. 거기 몸 안에 있는 생명들이 다 보살로 화해서 응신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정히 급하고 큰 문제라면, 예를 들어 나라의 일이라든가 또는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지구가 잘못 된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면 모든 일체가 즉 저런 나무 하나도 그냥 있지 않고 모두 작용을 해줘요. 나무라면 목신인데 다

시 말하면 우리의 불성의 영혼이예요. 불성은 가만히 있으면서 영혼은 그냥 돌입해 순간 말이에요. 하다못해 어느 묘지가 많은 데서 거기서도 전부 한마음으로 모아서 응신이 돼줘요. 이 소리 거짓말로 들으시겠소?

어 느 분은 얼마나 못났으면 하다 못해 꽃 한 송이 보고도 내가 이렇게 아파서 죽었는데 어떡 하면 좋으냐고 했어요. 속으로 간절히 관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니가 꿈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주 예쁜 선녀가 꽃으로 장식을 했는데 그 꽃이 파리 하나하나를 때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꽃 이파리를 때더니 그냥 불여주더라고요. 그 길로 병이 나았대요.

그럼 그게 꿈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깃불을 켤 때 말입니다. 전력이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꿈일까요? 불 들어오고 나갈 때 전력이 와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은 하지만 진짜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보지 못하시죠. 보지 못한다고 해서 아니라고. 꿈이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생기는 능력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때로 '아, 나는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해서 안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게 아니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을 땀겨주는 거예요. 실천을 해보라구요.

능통하고 과감하고 몰라서 지 않는 그 진정한 마음이라면 왜 자기를 자기가 못 믿겠어요? 자기 자성을 왜 자기가 못 믿느냐구요. 그리고 또 못 믿는다 하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는다면 한번 죽지 두 번 죽어요? 죽고 사는 그거를 생각해서 내가 무섭다 두렵다 이라고 물려선다면 그건 아무 것도 아니죠. 이거는 육신에 치우쳐서 한 치 앞도 내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이죠.

예전에 한번 이런 예가 있었죠. 너무나 배가 고파서 영공영공 기어서 쓰러져 길을 잃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옆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가 나와요. 나와서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그걸 먹고 일어났어요. 그것도 꿈일까요? 이 마음이라는 게 꿈같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꿈이라고 그러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실제예요. 우리 살아가는데 있어서 말이죠.

어느 때에 한번은 이런 예도 있었어요. 누가 어떤 일을 하는데 꼭 수만명이 있어야만 뭐가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 마음이 지극한데 지극하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내가 대답을 했으니 이전 내가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거지가 되는 거죠. 거지를 그냥 말로 하는 거보다도 진짜이게 거지를 한다면 그 거지의 대가가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차를 타고 오는데 말이에요. 묘지가 그냥 아파트같이 찍 올라가고 그렇게 많은 묘지가 있더군요. 그래서 거기 묘지에 있는 분들을 다 동원했어요. 이런 말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런 말은 보통 여러분이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하죠. 그러나 지금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위급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주인

공으로 하여금 전부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일이 성립이 됐고, 그 후로 한 번도 찾아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내 할 일만 하면 됐지 그 사람에게 고맙다 뭐 어쩐다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남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 또 무엇을 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주고나서 꼭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이 공부에는 어긋나는 것이죠.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한마음의 도리예요.

여 러분이 살아가면서 참이 깊은 뜻을 얼마나 헤아릴지 모르지만 우선순위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성이 수억 겁을 통해서 형성되게 한 장본인이예요. 그리고 진화시켜서 이렇게까지 이끌고 온 장본인이 라구요. 얼마나 소중한 보배인지 모르시죠. 꼭 알아야 돼요. 못났든지 잘났든지 말이에요. 한 생 살아가는데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모습, 주어진 삶, 주어진 어려움 이런 것을 누구에게 항의할 합니까? 자기가 몰랐을 때 모두 그렇게 잘못 행한 것이 더 많지 잘 행한 것이 더 많았습니까?

내가 항상 그러죠. 이 정수에 정수불이 있는데 그 정수불은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라구요. 그 자동적인 컴퓨터에 자기가 한 것대로 들어가면 바로 앞서 한 건 없 어집니다. 아주 쉽게 가르치죠. 여러분은 그냥 관하면 거기에 입력되면서 앞서의 입력은 자꾸자꾸 없어지니까 즉 소멸되는 거죠. 어떠한 문제든지, 하다못해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없어지죠. 왜 없어지느냐? 바로 그 당시에, 관하는 그 당시에 바로 살인을 하는 사람을 건져주 니가 그냥 없어지면서 걸려져요. 그러면 그게 없어지죠. 무명의 겁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마음공부라는 게 참 위대하고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바다가 되도록 내 모든 것을 다 보임해서 더러운 거든지 깨끗한 거든지 다, 바다에 물 흘러가 듯 그렇게 되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그건 다 정화가 된다. 그 물이,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수증기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 온다는 걸요. 그렇고 그것이 다시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예요. 정화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히 알고 볼때 그게 정화가 되지 않는다면 오물이나 세균 덩어리 모두 그런 거죠. 그렇게 정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이 다 그 물을 먹고 살죠. 나무가 크면 큰 대로 먹고 작으면 작은 대로 먹고 살죠. 산길을 걸다보면 요만한 이파리 하나 가 나와서 나뭇잎을 거리죠. 그것도 자기 생김 대로 먹어요. 그래서 평등공법이라고 그러죠.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지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진각승서 시리즈 ⑩

## 밀교 보리심론



밀교 보리심론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회당대중사에서 깨달으신 당제설법(當體說法)과 연결하여 부처님의 본심을 보지 못하고 문자에만 치우친 모든 분들에게 해탈의 선약이 될 수 있는 지침서이며 현재 불교방송 중이다.

해당대중사 講解 / 330면 / 값 10,000원

도서출판 진각승

도서출판 진각승 해인행은 불심가득한 양서를 펴냅니다

진각승서 시리즈 ⑩ 인도불교사상사 上 인도불교사상사 下 대일경 강요 대일경 강의  
 히로사카야 지음 권영택 옮김 / 274면 히로사카야 지음 권영택 옮김 / 318면 권영택 옮김 / 230면 권영택 옮김 / 319면

## 서북 황토 토종 오가피농장

“한줌의 오가피는 한마차의 금속을 갖는 것보다 낫다” - 본초강목(P 1732)

- 왕릉품에서 10년이상 자란 무궁에 오가피
- 유기농법에 의한 생강력이 기록산 오가피

KBS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MBC 9시뉴스, 조선일보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화제가 된 오가피 제품을 생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99년 1월 9일자 일간스포츠에 보도 (오가피 잎이썩더니 술가피) 에 따르면 이종범, 선동렬, 이봉주 등의 유명 운동 선수들을 비롯한 대표선수 68명이 오가피를 상복하여 효과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황토 토종오가피 농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오가피 5천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갖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 ※수협생, 고시준비생에게 탁월한 효과 보장.
- ※여성중앙 9월호 (P636) 다이어트 최고의 식품으로 소개. (경희대 육정수 박사)

-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복용사례와 오가피의 효능에 관한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 제품 오가피추출액, 목욕분양
- 전화문의시 전국 택배 배달
- 주소: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3리 9-5 서북오가피직판장
- 전화: 0333)682-503, 8588, 682-4965 (농장) FAX: 0333)682-5034
- 인터넷 홈페이지: http://myhome.netsgb.com/baeghj/

##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야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새로운 천년시대에 정진한 용의 꿈은 천년의 운명을 맑게 해줍니다.

◎ 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 (수액과 처단) 특별보시!

정품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글씨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액화 방지 홍인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본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ehamall.co.kr

사업설명, 가격분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담당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주) (02)2242-0331, 2242-0255 (아) (02)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정준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